



추석 영화

코믹·액션·감동... 볼거리 '가득'

추석은 극장가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대목이다. 전조전이었던 지난 주말 '본 얼티메이텀'이 '권순분 여자 납치 사건' 등 쟁쟁한 한국영화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이변을 일으켰다. '본 얼티메이텀' 등 시리즈 1, 2편을 관람했던 관객들이 3편에도 충성도를 보인 것. 특히 "재미있다"는 입소문 덕에 다른 영화들과 갈수록 격차를 벌이고 있는 '본 얼티메이텀'이 명실 공히의 하나였던 '한국 영화 볼거리 신화'를 깰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개봉작들과 함께 20일에는 코미디 '상사부일체-두사일부일체 3'과 광경택 감독의 '사랑', 니콜 키드먼 주연의 '인베이전'이 선보이며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

◇ 사랑

한 남자의 지독한 '사랑' 문클

'친구', '태풍'의 광경택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으로 영화 제 목처럼 한 남자의 지독한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학 와 첫눈에 미주에게 반한 인호는 헤어진 지 10년 후 재회한다. 인호는 평생 미주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지만 양아치 치곤은 미주 엄마의 빛을 빌미로 미주를 폭행하고 복수심에 불탄 인호는 치곤을 칼로 찌른다.

'미녀는 괴로워'로 주가를 올린 주진모가 주연을 맡았으며 '구미호 가족' 등 영화에 꾸준히 출연해온 박시연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특히 기존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버리고 '악역'으로 변신한 김민준의 연기에 많이 관심이 쏠려있다. <15세 관람가>



보다는 몸값을 낮추는 데만 전전긍긍한 자녀들에게 화가 나 몸값을 500억원으로 올려주겠다고 납치범들과 한 패가 된다.

'거침 없이 하이킥'으로 최고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나문희가 주인공 권순분 여자 역을 맡았으며 유해진·강성진·유건이 '어리버리 삼총사'로 출연한다. <12세 관람가>

◇ 상사부일체

두사부일체 시리즈의 '회사편'

1, 2편을 합쳐 96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두사부일체'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다. 1, 2편의 배경이 학교였는데 반해 이번 영화에서는 무대를 회사로 옮겨 이야기를 진행한다.

최근 제작된 코미디 영화의 속편들이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사부일체'의 흥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인공 계두식은 보스의 명령으로 불철주야 열심히 공부한 결과 대기업에 당당히 입사하지만 회사 생활을 만만치 않다. 신입사원 연수 때 사고를 친 두식은 보험회사로 좌천되고 노조 문제에 얽혀들게 된다.

이성재가 계두식 역을 맡아 코믹 연기에 도전하며 송찬민·박상민·김성민이 김상중·정운택·정용인의 역을 대신한다. 서지혜는 이성재와 함께 러브 라인을 만들어간다. <15세 관람가>

◇ 본 얼티메이텀

본-CIA 숨막히는 대결 '첩보물'

독특한 첩보물로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본 얼티메이텀' '본 슈퍼머시'에 이은 3번째 시리즈로 전편과 마찬가지로 맷 데이먼이 주연을 맡았다.

관객들 사이에서 1, 2편보다 낫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예매율이 치솟고 있는 작품이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미 정부 소속 암살요원이었던 사교로 기억을 잃은 제이슨 본은 자신을 암살자로 만든 이들을 찾는 중 '블랙브라이어'라는 존재를 알게 된다.

CIA는 비밀 기관인 이 조직의 사수를 위해 본을 죽이려 하지만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는 본은 CIA를 상대로 숨막히는 대결을 벌인다.

런던, 뉴욕, 마드리드, 모로코 등을 오가며 촬영한 스펙터클한 장면과 화려한 추격씬들이 압권이다. 무뎠던 요원 본 역을 맡은 맷 데이먼의 연기 역시 모자람이 없다. <12세 관람가>

◇ 인베이전

'바디 스네처' 원작 SF 호러



이미 4차례나 영화로 만들어진 책 피니의 SF 호러 소설 '바디 스네처'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스페이스 셔틀이 지상에 불시착한 뒤 외계 바이러스의 존재가 발견되고 이에 감염된 사람들은 감정을 잃는 상태로 변해간다.

예전 같지 않은 전남편의 변화에 두려움을 느꼈던 정신과 의사 캐롤은 외계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침투해 정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남편이 데려간 아들을 구출하기 위해 목숨을 건다.

니콜 키드먼과 함께 '007' 데니얼 크레이그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15세 관람가>

◇ 권순분 여자 납치 사건

알짜배기 부자 권순분 여자 납치되다

'신라의 달밤', '주유소습격사건' '공복질 특사' '귀신이 산다' 등 코믹 영화의 절대 지존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김상중 감독 작품이다. 전국에 수십 개의 체인을 보유한 권순분 여사와 어리버리 3인조 납치범이 벌이는 이야기가 주된 줄거리.

알짜배기 부자 권순분 여사는 자신이 납치됐음에도 자신의 안전

◇ 두 얼굴의 여친

'다중인격' 여자친구와 힘겨운 로맨스

20대 관객들을 겨냥한 로맨틱 코미디물로 주로 스릴러물에 자주 등장했던 '다중인격'이라는 소재를 색다르게 풀어냈다.

연애 한번 못해본 '대학 7학년' 구상은 청순하고 귀엽고 순진한 아기를 만나 꿈같은 연애를 기대한다.

하지만 그녀 속에는 또 다른 그녀가 있었으니 바로 욕을 퍼붓고 폭력을 일삼는 하녀다. 하니와 하니 사이에서 구상은 힘겨운 로맨스를 이어가는데..

'내 이름은 김삼순' 등으로 드라마에서 인기를 모은 정려원의 스크린 데뷔작으로 연기면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봉태규가 정려원의 연인으로 등장한다. <15세 관람가>

◇ 즐거운 인생

40대 중년남자들 잃어버린 꿈 찾기

'왕의 남자' '라디오 스타'의 이준익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으로 40대 중년남자들이 잃어버렸던 꿈을 찾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대학가요제에 세차례 도전했지만 모두 고배를 마신 '활화산 밴드'의 멤버들은 이제 40대가 됐지만 그들의 초상은 우울하기만 하다.

실직자가 된 기영, 킥 서비스와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성욱, 기러기 아빠 상호는 죽은 친구 아들 현준을 보컬로 영입해 밴드를 재결성한다.

정진영·김윤석·김상호·정근석 등 배우들이 모든 연주를 직접했다. 연기와 배우들과 호흡을 맞춘 장근석 역시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준다. <전체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추석 영화 뭘 볼까?

▶ 올 추석 극장가에는 코믹, 액션, 멜로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선보이고 있다.

광경택 감독의 '사랑', '두사부일체' 시리즈인 '상사부일체', 맷 데이먼이 주연을 맡은 '본 얼티메이텀', 다중인격을 소재로 한 로맨틱 코미디 '두 얼굴의 여친', 40대 중년들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즐거운 인생'

(사진 위로부터)



무시시

색다른 빛깔의 영화를 보고싶다면...

좀 더 색다른 영화를 보고 싶다면 광주극장을 찾아보자. 광주극장은 이번 추석 기간 동안 대만, 중국, 일본, 영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제작된 다양한 장르의 영화 5편을 선보인다.

▲무시시=오다기리 조가 주연을 맡은 영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에 빙의돼 불가사의한 현상을 일으키는 생물 '무시'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일본에서 290만부 이상 판매된 걸작 만화 '총사'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영원한 여름=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한 10대들의 가슴 아픈 성장통을 그린 대만영화다. 각자의 캐릭터에 어울리는 젊은 배우들의 연기가 인상적이다.

▲이리나 팜=믹 제거의 연인이자 영국 연극과 영화계의 전

설적인 연기자로 불리는 마리안느 페이스풀이 출연한 영화다. 평범한 중년 여성이 손자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섹스숍에서 일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개시백=실연의 상처로 인해 불면증에 걸린 남자주인공이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시간을 멈추는 상상을 하는 달콤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다.

▲스틸 라이프=지아징크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으로 댄 건설 수물 예정지인 산사 지방을 배경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 상영 시간표는 광주극장 홈페이지(cafe.naver.com/cinewangju)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